

민들레처럼

박노해 시
조민하 가락
배고픈세상 그림



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가 숨에 새긴 불타는 투혼
모질고 모진이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투쟁의 길에



무수한 발길에 짓밟힌 대도 민들레처럼



온몸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민들레처럼



특별하지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않을지라도 흔하



고 너른들불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아 -



민들레뜨거운 가슴 수천 수백의 불씨가 되어 아 -



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투혼으로